대학생이란 무엇인가, 공부란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창의성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. 사람은 동물보다 나은 존재이기에 동물은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인간은 더 나아가서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한다. 그렇기에 큰 뜻을 품고 정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가꾸는 것을 추구해야한다. 스마트(Smart)하고 3배의 원칙,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움직이고 청소하기 그리고 다양한 것의 조화를 추구한 공부법을 추구하며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끄집어내는 방법을 훈련하자.

이러한 내용을 통해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.